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11월)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11월)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으로 11월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신앙인에게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의미 깊은 대표기도문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1 -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며

“너는 마음의 소원대로 네게 주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무수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듯,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국 땅에 내려주신 단비와 따듯한 햇살로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황금빛 들녘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더욱 간절히 깨달은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둘러쌀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넓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기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며 감사가 넘칩니다.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2 -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여호와와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3)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한 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던 가족들이 회복되고, 취업과 사업으로 고민하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겨울과 새해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3 -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감사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사도행전 6:7)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영적 성장과 물질적 축복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새신자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장년 성도들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를 통해 영적 성장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구역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국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물과 시설들이 잘 보존되고 예배 환경이 개선되어 성도들이 더욱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교역자, 교회 임직자들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성장과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4 -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에베소서 5:2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자녀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부모들이 더욱 겸손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고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고, 작은 친절과 섬김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도 더욱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며 감사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대표기도문 5 -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감사

“여호와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11)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집중력과 건강을, 직장인들에게는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직하고 신실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더욱 화목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더욱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전도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 됨과 사랑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더욱 견고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교육과 복지 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문을 원하시면 [사랑의교회 설교 말씀] (<https://www.sarang.org/tv/sermon.asp?sflag=sunposi>)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